

‘광주·전남 통합’ K-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 도약

시·모빌리티진흥원 ‘미래차산업 글로벌3강’ 비전 제시 ‘초광역 모빌리티 발전 로드맵’ 발표...발전 방향 공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지역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분야의 산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청사진이 공개됐다. 인공지능(AI)과 제조, 에너지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3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미래모빌리티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지사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산·학·연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기존 광주의 첨단 자동차 제조 기반과 AI 인프라, 전남의 넓은 부지와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초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 산업 경쟁

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발제에 나선 김성진 원장은 통합특별법에 명시된 399개 특례 가운데 모빌리티 산업 혁신과 직결되는 5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5대 특화 전략은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자율주행 모빌리티 육성 △미래항공 모빌리티 활성화 △주행 데이터 글로벌 허브 구축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도화 등이 골자다.

비전 발표 이후에는 자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강기정 시장은 드론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전망과 실증 기반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특별법에 담긴 8개 핵심 특례의 의미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지정 특례 등 그동안 지역이 필요로 했던 핵심 과제가 대거 반영됐다”며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은 광주전남이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3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미래모빌리티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는데 폭발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에너지-제조를 ‘달리는 혁신’으로 연결해 미래모빌리티 산업혁신성장벨트를 구현하겠다”며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부강한 광주전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

았다.

광주지역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 지원 사업이 나누어 있어 행정 절차에 혼선이 있었는데, 통합 특별시 출범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광역 단위 대규모 실증사업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

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진 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연 5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과감한 규제 특례는 지역 기업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제조-AI가 결합된 초광역 혁신 메가클러스터를 완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모빌리티 시티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자동차 유관 기관은 이날 수렴된 기업 의견을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에 맞춰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소상공인·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강화

광주신보보증재단이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하며 인권 중심 경영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주신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HRMS(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HRMS 인증은 기관이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정책·절차·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인권경영 분야 전문 인증 제도다.

1996년 설립된 광주신보는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

을 지원하는 지역 공공금융기관이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서민 금융 안전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경기회복과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도 보증 공급 확대, 채무조정 지원,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기능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재단은 인권경영 선언과 정책 수립을 시작으로 인권경영 환경이 실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구축,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직 전반의 인권경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임직원은 물론 소상공인과



광주신보보증재단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HRMS(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

고객, 협력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반영하고,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신보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이해관계자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염규승 광주신보 이사장은 “이번 HRMS 인증은 사람 중심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의 결실이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인권 존중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ESG 기반의 책임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경제지주는 (사)한국양파연합회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경제지주, 양파 소비촉진 할인 지원

11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서 최대 45% 할인 판매

농협경제지주는 (사)한국양파연합회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동시 소비자의 장비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할인지원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양파를 판매한다.

할인 적용 대상 카드는 NH·국민·삼성·롯데·우리·전북카드이며,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 마니, 네이버페이 포인트·머

니, 토스머니·계좌, 페이코 포인트가 포함된다.

양파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한 채소로, 혈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 관리에 적합한 농산물로 꼽힌다.

배정된 한국양파연합회장은 “국산 양파는 생산부터 선별, 출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우리 양파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삼도농협은 최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풍요 가득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삼도농협, 정월대보름 맞아 ‘부럼 나눔 행사’

경로당 어르신·독거노인·취약계층 조합원 대상

삼도농협은 최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풍요 가득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경로당 어르신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도농협 부녀회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부럼 세트를 직접 포장하고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

께 보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삼도농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사업을 확대해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문재 삼도농협 조합장은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은 공동체 안의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카스 라이트,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과 캠페인

마라톤대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도

국내 1위 라이트 맥주 카스 라이트가 신규 캠페인 ‘오늘 하루도 라이트 엔딩!’을 시작하며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과 함께 신규 TV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제로 슈거’와 ‘저칼로리’를 특장점으로 앞세워 오상욱 선수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라이트 엔딩’이 주는 심리적·신체적 ‘가벼움’을 강조한다.

고강도 훈련을 마친 오상욱 선수가 숨을 고르는 장면으로 시작해 집으로 향하는 길, 그는 ‘오늘 하루도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듯 카스 라이트를 떠올린다. 치열한 하루의 무게는 내려두고, 제로 슈거·저칼로리의 카스 라이트를 마시며 캠페인 키워드인 ‘라이트 엔딩’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캠페인 콘셉트에 맞춰 귀갓길과 헬스장 등의 공간에서 옥의 광고도 전개한다.

오 상욱은 끊임없는 자기관리, 도전 정신, 세계 정상급 퍼포먼스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펜싱 선수다. 지난 1월 개최된 FIE 사브르 월드컵에서 개인전·단체전 금메달을 연이어 획득, 세계 최정상 기량을 다시 증명했다. 카스 라이트는 이러한 행보와 브랜드 이미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3년 연속 오 상욱을 브랜드 모델



로 기용하고 있다. 신규 광고는 TV, 유튜브, 옥외광고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카스 라이트는 마라톤 행사 중심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늘 하루도 라이트 엔딩!’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026 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 15일 ‘2026 동아시아 마라톤’에서 러너들을 직접 만나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해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제로 슈거·저칼로리라는 카스 라이트의 특장점을 물론 카스 라이트가 추구하는 균형 잡힌 라이프스타일을 오상욱 선수의 일상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했다”며 “일상에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카스 라이트만의 소비자 경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목우촌, ‘주부9단 구운마늘 햄’ 출시

11일까지 할인 행사...소용량 제품 리뉴얼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주부9단 구운마늘 햄’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22%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구운마늘 햄은 국산 돼지고기 함량을 88.9%까지 높이고, 제주 산 마늘을 더해 깊고 은은한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원재료의 품질을 강화해 프리미엄 육가공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스티디셀러인 ‘주부9단 살코기

햄’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용량 제품으로 리뉴얼했다. 가구 구조 변화와 간편식 수요 확대에 대응해 제품 구성을 재검토한 것이다.

박철진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 “1인 가구 확대와 소용량 식품 선호 현상을 반영해 제품군을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주부9단 브랜드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육가공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